

경남 지역 ‘읻-’의 활용형과 기저형

- 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

김세환*

|| 차례 ||

- I. 서론
- II. ‘읻다’의 전국적 방언형과 활용형
- III. 경남 방언의 ‘읻-’
- V. 결론

【국문초록】

어간 ‘읻-’은 전국적으로는 //읻-//, //읻푸-//가 주로 나타나며, //읻푸-//는 재분석에 의한 변화이다. 경남 고성에 나타나는 단일 기저형 //읻-//은 의미상 유사한 ‘읻-’(읻다)의 활용형 ‘이린다, 일러’의 활용형에 영향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읻-’의 활용형 ‘읻꼬~읻코’와 ‘읻-’의 또다른 활용형 ‘일꼬~일코’의 발음상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창녕의 단일 기저형 //읻-//은 이전 단계의 활용형 ‘읻꿍게네, 읻뀐따’ 등의 앞부분이, 의미상 유사한 ‘읻다’의 활용형 ‘일꿍게네, 일뀐따’ 등의 뒷부분과 혼효된 ‘읻꿍게네, 읻뀐따’에서 다시 K가 P로 바뀌는 PK-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였다. ‘읻뀐따’ 등의 형태가 남해, 울산 등에서도 확인이 되며 그 설명은 동일하다.

복수 기저형 중 창원의 //으르-//와 //으르-//는 ‘읻꼬~읻코’ 혼용에 의해 ‘읻-’로 변화한 어간의 으-계 어미 결합형 ‘으룽께’를 ‘으르-+-으께’로 재분석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하여 ‘으르-’가 되었다. 또한 이것을 르-말음 어간으로 인식하면서 아-계 어미 결합형이 ‘을편따’로 나타나게 되었다. 의미상 유사한 어간인 ‘읽-’의 방언형 중 //이르(리)-/일르-//의 패러다임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해, 울산에서 발견되는 복수 기저형 중 //음-//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전 단계의 활용형 ‘을편따’의 앞부분 ‘을’이, 의미상 유사한 ‘읽-’의 활용형 ‘일건따’의 뒷부분 ‘건따’와 혼효된 ‘을궁계네, 을건따’ 등의 활용형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경남북을 제외한 전역에서 발견되는 ‘을푸-’를 포함하여, ‘음-’의 변화는 음변화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서로 다른 기저형이 경남지역에 몰려 있는바, 이것이 음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형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유추, 재분석, 혼효, 패러다임 간 유추 등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 음-, 읽-, 재분석, 유추, 혼효, PK-교체

1. 서론

국어의 자음군 말음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발음하기가 애매한 어간으로, ‘음다’가 있는 듯하다.¹⁾ 이 어간은 현대 국어에서 ‘근교’ 말음 어간의 유일 예로서,²⁾ 이 용언 어간과 관련하여, 표준 발음법 제4장 11항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필자는 발음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훈-’도 제보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워 하였다.

2) 중세 국어에는 체언 어간에 ‘앞(앞)’이 존재한다.

(1) 겹받침 ‘ㄹ, ㄴ,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ㅋ, 비]으로 발음한다.

[앞부분 생략] 을고[읍꼬], 을다[읍따]

이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용언 어간 ‘을다’는 ‘읍꼬, 을따’로 발음한다. 즉 ‘ㄹ표’ 말음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은, 자음군 단순화를 겪어 ‘ㄹ’이 탈락한 ‘읍꼬, 을따’이다. 그러나 한국방언자료집(경기도편)에 의하면, 경기도의 ‘고양, 양주, 화성, 안성’ 지역에서만, ‘읍는다, 을찌’ 등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을푼(푼다)’ 등으로 활용을 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자료인 국립국어원(2010)의 경기도 자료에서도 ‘을다’는 ‘화성, 포천, 파주, 이천’ 등에서 ‘-고’가 결합할 때, ‘을푼고, 을푼고, 을푼구’ 등으로 활용을 하거나 ‘을꾸’로 활용을 할 뿐 ‘읍꼬’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이 어간은 경기도에서도 ‘을푼-, 을푼-’ 등으로 활용형의 이형태가 달리 나타나지만,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활용형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 기저형의 차이가 크다. 이 글은 우선 ‘을-’의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고, 이 어간이 경상남도의 ‘고성, 창원, 창녕, 산청, 남해, 울산’ 지역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을 통하여 다양한 기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국어에서 ‘을다’의 형태는 『영가집언해』에 ‘나비 프람 기리 이푸물’(『영가집언해』 하 106)에서 ‘을-’으로 나타나며, 『두시언해 중간본』에 ‘을-’으로도 나타난다. 이 어간의 모음의 변화를 논외로 하면, ‘을-’의 ‘ㄹ’이 첨가된 것이 특이하다. 17세기 문헌인 『경민편언해』에는 ‘을푼’의 형태도 나타난다. 김현(2006: 120)에 의하면, 이 어간은 ‘을>앞(앞), 알푼->아푼-(아프다)’에서 양순음 앞 ‘ㄹ’ 탈락의 역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 변화가 국소적이라는 것을 의문으로 여겼다. 이

역현상으로 인하여 ‘ㄹ’이 첨가되는 예로 ‘점->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잎->읻’의 변화보다는 ‘읻’으로 변화한 이후의 다양한 변화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활용형이나, 이형태를 통하여 기저형의 변화를 살필 때, 기저형 변화의 요인으로 음변화, 유추, 재분석 등을 들 수 있는바, 음변화는 음운의 변화에 의한 것(‘ㅇ’의 변화 등)과 음운론적 과정에 의한 것(구개음화 등)으로 구분된다(최명옥 1998: 232-233). 유추는 김현(2006:87)에 의하면, 어휘부 최적화의 하위 항목으로 유추를 두고 있으며, 유추의 하위 항목에 평준화와 감염을 포함하였다. 평준화는 기저형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감염은 두 복수 기저형이 비슷해져 유사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감염은 반의어나 같은 어휘장의 단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바, 경북의 일부 방언에서 ‘없->엇’으로의 변화는 ‘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석규 1999: 24).

이 글에서는 유추의 하위 부류에 혼효를 추가하고자 한다. 혼효는 기저형이 줄어들면서 두 기저형이 유사해지는 변화이다. 기저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평준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기저형이 유사해진다는 점에서는 감염의 성격을 지니므로, 따로 하위 분류한다. 재분석 역시 변화의 요인으로서, 그 적용 단위는 형태소 단위이며, 공시 문법 내에서 재분석이 가능하고, 유추가 후속될 때 인식이 된다(김현 2006: 151-161). 이 글에서는 변화의 요인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며, ㄹ-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어간에 유추되어 활용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패러다임 간 유추의 개념을 원용하기로 한다(김경아 2008: 117).

II. ‘읻다’의 전국적 방언형과 활용형

이 장에서는 ‘읻다’의 전국적인 방언형을 먼저 제시하여, 대략적인 분포를 보고자 한다. 여기서 대략적인 분포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어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도별로 5~6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총 53개 지역의 활용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자음어미의 경우 ‘-지, -고, -더랴’가 제시되어 있고, 으-계 어미는 ‘-으니까’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계 어미로는 ‘-아/어(-았/었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경우, 각 계열의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이 모두 제시되지 않은 곳도 있고, 조사 자체가 되지 않은 곳도 있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 양평, 강원도 원주, 홍천, 충청북도 제천, 충주, 옥천, 전라북도 무주, 남원, 군산, 전라남도 영광, 경남의 산청 등 12개 지역이다.

‘읻다’의 활용형을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자음어미 결합형, 으-계 어미 결합형, 아-계 어미 결합형 중에서 특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한 활용형이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기저형을 특정할 수는 없다. 활용형이 ‘읻꼬, 읻꼬’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자음근단순화에 따른 차이이므로 기저형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 따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읻다’의 활용형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각각의 활용

3) 53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용인, 화성, 포천, 파주, 양평, 이천. 강원: 삼척, 원주, 양양, 홍천, 평창, 인제. 충북: 제천, 청원, 충주, 옥천, 보은. 충남: 공주, 대전, 논산, 서천, 예산, 서산. 전북: 임실, 완주, 무주, 남원, 군산, 고창. 전남: 곡성, 진도, 영광, 보성, 영암, 신안. 경북: 의성, 청도, 고령, 청송, 상주, 경주. 경남: 고성, 창원, 창녕, 산청, 남해, 울산. 제주: 가시, 건입, 동북, 색달, 조수, 호근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형태는 이형태만을 우선 제시해 둔다. 먼저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를 보자.

■ ‘을푸-’ 계열

(2) 을푸-, 을프-, 얼푸-4)+자음어미

경기 화성, 파주⁵⁾

강원 삼척, 양양, 평창, 인제⁶⁾

충북 청원, 보은⁷⁾

충남 예산

전북 임실, 완주⁸⁾

전남 곡성, 진도, 보성, 영암, 신안⁹⁾

경북 x¹⁰⁾

경남 x¹¹⁾

제주 가시, 건입, 동북, 색달, 조수, 호근

(2)는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자음어미 결합형의 일부라도 ‘을푸-, 을프-, 얼푸-’(‘을푸-’ 계열)로 이형태가 확인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4) 전남 보성 지역에 ‘얼푸지, 얼푸고’가 나타나서, 동일한 유형에 포함하였다.

5) 용인, 양평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6) 원주, 홍천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7) 제천, 충주, 옥천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8) 무주, 남원, 군산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9) 영광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10) 고령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11) 산청 지역은 항목이 비어 있다.

이 ‘을푸-’ 계열이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모든 도별 지역에서 확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경남 지역의 ‘을다’의 기저형을 논의하므로, 경남에서 나타나지 않는 ‘을푸-’ 계열의 변화는 여기서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경기 파주 지역의 활용형 전체를 보면, ‘을푸구, 을푸더라, 을푸니까, 을퍼도’로 나타나, 기저형은 단일기저형 ‘을푸-’로 설정할 수 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 어간의 이전 단계를 ‘을-’으로 본다면, 아-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아-계 어미 결합형을 보면, ‘을+-어X’에서 활용형 ‘을퍼X’를 ‘을푸+-어X’로 재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으-계 어미 결합형의 경우 ‘을+-으니까 → 을프니까’로 되어 ‘을푸니까’와 비교하였을 때 재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활용형 전체의 음변화로 인하여 원순모음화가 적용되면 ‘을프니까>을푸니까’가 될 수 있으므로, 으-계 어미 결합형도 ‘을푸니까 ← 을푸+-니까’로 재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계 어미 결합형과 더불어 으-계 어미 결합형도 재분석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 ‘을-/일-’ 계열

(3) 을-, 일-+자음어미

충남 논산¹²⁾

경남 고성, 창원, 울산

(3)은 어간 ‘을다’가 자음어미가 결합할 때, ‘을-, 일-’로 이형태가 나

12) ‘-더라’와 결합시 ‘을터라’로 나타난다.

타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ㄹ’ 말음으로 이형태를 분석한 이유는, 충남 논산 지역에서 ‘-더라’가 결합할 때, ‘을터라’ 형태가 나오고, 경남 고성 지역에 ‘-고, -더라’와 결합 시 ‘일꼬, 일터라’ 등이 나타난다. 경남 창원에서 역시 ‘-더라’와 결합 시 ‘을터라’가 나타나며, 울산에서 ‘-지, -고, -더라’와 결합할 때 ‘을치, 을코, 을터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활용형에서 ‘을-, 잃-’을 분석해 낼 수 있다.

■ ‘을-’ 계열

(4) 을-, 잃-+으-계 어미, 아-계 어미

충남 서천¹³⁾

경북 청도

경남 창녕, 남해

(4)는 어간 ‘을다’가 아-계 어미,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ㄹ’ 말음을 지닌 이형태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지역이다. 충남 서천, 경북 청도, 경남 창녕, 남해가 그러한 지역에 해당한다. 충남 서천에 ‘을부니까, 을버따’가 나타나는데, 이형태 ‘을-’을 분석해 낼 수 있다. 특히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얼꼬, 얼떠라, 얼버니까, 얼버따’ 등으로 나타나, 기저형을 설정할 때 단일 기저형 ‘을-’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변화하였다. 이 지역은 ‘래’ 자음군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을 때, ‘ㄹ’로 단순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꼬, 얼떠라’의 어간을 ‘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13) ‘을부니까, 을버따’로 나타난다.

■ '을-' 계열

(5) 을-+으-계 어미, 아-계 어미

경남 남해, 울산

(5)는 어간 '을다'의 이형태가 으-계 어미, 아-계 어미와 결합시, 'ㄹ' 'ㄱ' 발음인 '을-'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제시한 것으로, 경남 남해, 울산 지역에서 나타난다. 어간말 자음이 'ㄹ' 뒤에 '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데, 이에 대한 이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을르-' 계열

(6) 을르-+아-계 어미

경남 창원

(6)은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이형태를 '을르-' 정도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경남 창원이 이에 속한다. 이 지역에서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을런따'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분석해 낼 수 있는 이형태는 '을르-'와 더불어 '을러-, 을-, 을루-'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우선 '을르-'로 보고자 한다. '을러-'의 경우, '어' 발음 어간이 다른 모음 어간으로 재구조화가 되는 사실에 의해서 배제되고, '을-'은 어간말에 'ㄹㄹ'을 지닌 어간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배제되며(이진호 2008:136), '을루-'와 관련하여서는 이 지역어에서 2음절의 '우' 발음 어간은 대체로 어미 '-아X'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배제된다.¹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을런따'를 통해 어간의 이형태는 '을르-'로 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에 이어진다.

■ ‘읍쭈리-’ 계열

(7) 읍쭈리-+자음어미

읍쭈르-+으-계 어미, 아-계 어미

경북 경주

(7)은 경북 경주 지역에 나타나는 유일 예로서, 그 활용형은 ‘읍쭈리고, 읍쭈리더라, 읍쭈르니끼네, 읍쭈런따’ 등으로 나타난다.¹⁵⁾ 먼저 자음어미 결합형은 ‘읍쭈리-’로 설정할 수 있으나, 으-계 어미를 포함한 모음어미 결합형은 ‘읍쭈르-+-으니끼네, 읍쭈르-+-었다’로 분석이 될 수 있으므로 달리 설정된다. 그리하여 이 어간은 경주 지역에서는 복수 기저형 //읍쭈리-//와 //읍쭈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어간의 중세 어형은 ‘읷쭈리-’로 나타나, 이 글에서 논의하는 ‘읷다’ 어간의 계열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III. 경남 방언의 ‘읷-’

어간 ‘읷다’의 전국적인 분포에 이어 이 어간이 경남 방언에서 보이는 활용형 전체를 통하여 단일 기저형 어간으로 존재하는 지역과, 복수 기

14) 김정대(2005)에 의하면, 창원 지역에서는 ‘부수다’ 항목에 ‘뿌수더라, 뿌사알따’로 나타나고, ‘거두다’ 항목에 ‘거두더라, 거다알따’로 나타나는 것이 참고가 된다.

15) 보고서에는 ‘읍쭈런따’로 표기되어 있다.

저형으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그에 적용된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고성, 창녕, 창원, 남해, 울산’ 등이며, 경남 산청 지역은 2007년에 이 항목의 자료가 없어서, 보조적인 자료로 『한국방언자료집(경상남도 편)』의 활용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3.1. 단일 기저형 어간

어간 ‘읻다’가 경남 지역에서 단일 기저형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고성, 창녕 지역이다. 먼저 고성 지역의 기저형을 살펴본다.

(8) 고성

일코, 일터라, 이링께네, 이룬따(읻다)

(8)은 경남 고성 지역의 어간 ‘읻-’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 자음어미 ‘-고, -더라’와 결합한 ‘일코, 일터라’와 으-계 어미 ‘-으잉께네’와 결합한 ‘이링께네’와 아-계 어미 ‘-었다’와 결합한 ‘이룬따’ 등이다. 이들 활용형을 종합하면, 어간의 기저형은 단일 기저형 //읻-//로 설정할 수 있다. ‘ㄹ’ 자음을 지닌 ‘읻-’(읻다)의 활용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어간 ‘읻-’(읻다)은 어간의 모음도 달라졌고, 어간말 자음도 달라졌다.

먼저 모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으>이’ 음변화는 생각하기 어렵다. ‘으>이’ 전설모음화는 치찰음 아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 어형 ‘읻-’과 관련지을 수도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읻-’으로 변화한 것이 『자료집』 등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

다. 이 글에서는 ‘읽-’(읽다)와의 의미적 관련성에 의하여 어간 모음이 유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지역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에서 ‘읽-’ 어간은 ‘이린다, 일러’ 등으로 활용을 한다.¹⁶⁾ 이때 이 ‘이리-’는 으-계 어미 결합형이 ‘이렇게네’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인바, 의미적으로도 ‘읽다’와 ‘읽다’는 유사성을 지닌 것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요인으로 여겨진다.¹⁷⁾

자음의 변화와 관련하여, ‘ㄱ’ 뒤 ‘ㅎ’은 ‘일꼬~일코’와 같이 경음과 유기음이 어중에서 발음이 혼란을 보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창원 지역에서는 ‘을찌, 을터라’가 나타나고, 울산 지역에서는 ‘을치, 을터라’ 형태가 나타남을 볼 때, 어중에서 경음과 유기음의 발음상 혼란이 ‘ㄱㅎ’ 말음으로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성 지역어의 어간 ‘읽-’은 //이리-/일르-//(읽다) 어간과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모음이 변화하고, 어중 경음과 유기음의 발음상 혼란으로 인하여 어간말 자음도 변화하여, 단일 기저형 //읽-//로 변화한 듯하다.¹⁸⁾

(9) 창녕

을찌, 을꼬, 을떠라, 을빙게네~을빙게네, 을번따(읽다)

16) 중세 국어에 ‘읽다’는 ‘니르-, 니르-’ 형태로 나타난다. 심사위원으로부터, 이러한 중세 어형과 아울러 ‘말하다(謂)’의 의미를 지닌, ‘니르-, 니르-’와의 관련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미적으로 충분히 관계가 있어 보이고, 활용 형태 동일하여 연관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17) 남부 방언에서 ‘꽃->뽕-(꽃다)’의 변화는 의미적 관련성을 지닌 반의어 ‘뽕-’(뽕다)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현 2006: 116).

18) 김창섭(1996: 15-16)에 의하면 ‘세모나->세모냥-’은 사물의 겉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점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9)는 경남 창원 지역의 어간 ‘읻-’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으로 자음어미 ‘-지, -고, -더라’와 결합하여 ‘을찌, 을꼬, 을떠라’로 활용한다. 으-계 어미 ‘-응계네, -응께네’와 결합하여 ‘을빙계네, 을빙께네’로 활용하며,¹⁹⁾ 아-계 어미 ‘-었다’와 결합하여 ‘을뵤따’로 나타난다. 이때의 기저형은 어간말 ‘뵤’ 자음군을 지닌 단일 기저형 //읻-//으로 설정할 수 있다.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 결합형에서 어간말 ‘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음어미 결합형을 통하여 곧바로 ‘ㄹ’ 뒤의 자음이 ‘ㄴ’인 것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 ‘ㄹ’ 뒤에는 ‘ㄱ, ㄷ, ㅂ, ㅌ, ㅍ, ㅇ’ 등의 자음이 올 경우에도 ‘을찌, 을꼬, 을떠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 기저형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복잡한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기술의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일 기저형 //읻-//을 설정한다.

이 //읻-//의 ‘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 역시 ‘읻다’ 어간과의 관련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읻다’의 활용형과의 혼효에 의하여 ‘을건따’가 형성되고, 이후 ‘PK-교체’에 의하여 ‘을뵤따’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을빙계네~을빙께네’로 확대되었다고 본다. 3.2에서 남해, 울산 지역의 ‘을건따’를 설명하고 있듯이, ‘읻다’의 활용형 ‘을뵤따’의 앞부분 ‘을’과 ‘읻다’의 활용형 ‘일건따’의 뒷부분 ‘건따’가 혼효를 일으켜 형성된 ‘을건따’에 대하여 K가 P로 바뀌는 ‘PK-교체’를 일으킨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⁰⁾ K가 P로 바뀌는 변화가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이진호(2012: 253)에 ‘술갱이 → 술뱅이, 마구깐 → 마부깐, 주걱

19) 양순음 뒤에 표기된 ‘으’는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20) 소신애(2011: 111-115)에 의하면, ‘P>K’의 예가 ‘K>P’의 예가 월등히 많으며, 지리적 분포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주벽' 등이 일부 또는 전국에서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읍-'을 기준으로, '읍곶계네, 읍괴' 등이 '읍곶계네, 읍버' 등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ㄱ' 뒤의 유기음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음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자연성이나 일반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²¹⁾ 방언에서 'ㄱ' 뒤의 유기음이 경음과 혼동을 보이는 경우는 '알코~알꼬(않다), 일코~일꼬(않다)' 등에서와 같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유기음이 평음으로 변화한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이 '읍-' 형태가 '읍-'으로 바뀌어 형성된 복수 기저형 중 하나인 //읍-//이 전체 패러다임에 확대 적용되어 단일 기저형이 되었다.

한편, 산청 지역에 대한 지역어 조사 보고서에서 이 '읍다' 항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자료집』에 의하면, 산청 지역에 '엄넌다, 업찌, 얼퍼라'(읍다)로 활용형이 나타나, 단일 기저형 //읍-//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만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3.2. 복수 기저형 어간

어간 '읍다'가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은 창원, 남해, 울산 지역이다. 먼저 창원 지역의 활용형을 보도록 하자.

21) '*십-+-브->십브->십프->시프->싹-'(싫다)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승철(2003: 43)에서는 폐쇄음 뒤 평음의 연결 제약으로 인하여, 일부가 유기음화를 겪은 것이 '땀->땀-'(말다) 등에서 보인다고 하였다. 만약 '읍->읍->읍-'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유음+유기음' 연쇄가 '유음+평음' 연쇄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10) 창원

을찌, 을꼬, 을터라, 으릉께, 을런따(을다)

(10)은 경남 창원 지역 ‘을다’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각각 자음어미 ‘-지, -고, -더라’와 결합하는 경우와 으-계 어미 ‘-으께’와 결합하는 경우와 아-계 어미 ‘-었다’와 결합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이형태를 보면, ‘을찌, 을꼬’를 통해서, 어미를 경음화시킬 수 있는 자음을 ‘ㄷ’ 뒤에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을터라’를 통하여 ㄷ 뒤에 후음인 ‘ㅎ’을 상정하면 어간 말음은 ‘ㄷㅎ’이 될 수 있다. 이 ‘ㄷㅎ’을 통해 볼 때, ‘-지, -고’와 결합한 활용형 ‘을찌, 을꼬’를 통하여 ‘ㄷㅎ’을 상정할 수 있다.²²⁾ 물론 다른 자음도 가능하겠으나, 으-계 어미 결합형 ‘으릉께’도 함께 고려하면, ‘ㄷ’ 뒤에는 다른 폐쇄음이 아닌 ‘ㅎ’과 ‘ㅎ’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라’를 제외한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을-’이 선택되고 ‘-더라’와 결합할 때는 ‘을-’이 선택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 ‘으릉께’를 통하여서는 ‘을-’과 ‘을-’ 그리고 ‘으르-’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후술하듯이, 아-계 어미 결합형 ‘을런따’를 통하여, 어간 ‘을르-’를 상정하므로, 복수 기저형인 르-말음 어간이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의 어간 ‘X르-’와,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의 어간 ‘X르르-’를 고려하여, ‘으릉께’는 ‘으르-’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더라’를 제외한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기저형이, 후음을 말

22) ‘ㅎ’의 설정은 최명옥(1993: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접 방언에서 ‘ㄷ’ 불규칙 동사가 인접방언에서 ‘Xㅎ- : Xㅎ-’로 대응되는 것을 통해 ‘ㅎ’의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음으로 지닌 //음-//로 재구조화된 원인은 재분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을-’과 자음어미가 결합한 활용형 ‘을꼬, 을찌’ 등을 ‘을-+-고’, ‘을-+-지’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을꼬 ← 음-+-고’, ‘을찌 ← 음-+-지’ 등 후음 ‘ㅇ’을 지닌 것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더라’와 결합할 때, 어간이 유기음 ‘ㅎ’을 지닌 ‘을-’이 된 것은, 고성 지역에서 활용형 ‘일꼬, 일터라’를 설명할 때와 동일하다. 즉 ‘ㄹ’ 뒤 자음에 의하여 후행 자음이 경음화된 ‘을꼬’가 ‘을코’ 형태와 발음상 혼란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라’를 제외한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기저형이 //음-//이 되고, ‘-더라’와 결합하는 것은 //음-//이 된다.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은 ‘으렇게’로 나타나, 이것 역시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재분석은 ‘을-+-으께’의 활용형 ‘을프께’를 재분석할 수는 없고, ‘음-’과 ‘을-’ 중에서는 ‘음-’이 으-계 어미와 결합한 ‘음-+-으께’를 재분석한 것으로 본다. 자료에 의하면 ‘음-’의 결합은 ‘-더라’ 앞에서만 가능하므로 결합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활용형이 ‘을런따’로 나타나, 기저형을 //을르-//, //을러-//, //음-// 등으로 볼 수 있는바, 여기서는 //을르-//로 보고자 한다. //을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현대 방언에서 ‘ㄹ’ 발음 어간이 다른 어간으로 변화하는 용언 어간 구조 조건을 여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김현 2006: 137).²³⁾ //음-// 역시 국어에서 ‘ㄹㄹ’을 지닌 자음군 어간이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여기게 된다(이진호 2008: 136). 따라서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

23) 김현(2006: 137)에 의하면 현대 서울말에는 ‘서->스-’(서다)의 변화를 포함하여, ‘어’ 발음 어간이 없어졌다. 『자료집』에 의하면 의창(창원) 지역에서 ‘켜-’(켜다)는 ‘케지, 씨지, 케:야, 서라’ 등으로 활용하여 어간 모음을 ‘어’로 볼 수 없다.

은 //을르-//로 설정할 수 있다. 결국 창원 지역에서 이 어간은 복수 기저형으로 존재하는바, ‘-더라’ 앞에서는 //으-//, 그밖의 자음어미 앞에서는 //으-//, 으-계 어미 앞에서는 //으르-//, 아-계 어미 앞에서는 //을르-//가 된다.²⁴⁾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이 //을르-//가 된 것은 ‘을-’이 ‘으-’로 변화하여, 으-계 어미 결합형이 ‘으릉께’가 된 것과, 복수 기저형 어간인 르-말음 어간의 패러다임에 유추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을다’와 의미상 유사한 ‘읽다’의 방언형이 기저형 //이르(리)-/일르-//로 나타나는 것도 함께 작용한 듯하다. 먼저 ‘을->으-’의 변화 이후에 ‘으릉께’를 ‘으르-+-으께’로 재분석하게 되면, 이것이 르-말음 어간의 일부 패러다임 중에서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 ‘X르-’와 동일하게 된다. 다양한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이 형성되면, 이것이 르-말음 어간의 패러다임에 유추되어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도 ‘X르르-’가 되어 ‘을르-+-었다 → 을런따(을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즉,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을 르-말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것과, 의미상 유사한 ‘읽다’ 어간 //이르(리)-/일르-//를 포함한, 르-말음 어간과 패러다임간 유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남해 지역의 활용형을 보자.

(11) 남해

을찌, 을꼬, 을떠라, 을붕께, 을건따(을다)

24) 기저형을 이렇게 보면, 기저형 수가 4개로서 많아진다. 으-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을 //으-//로 본다면, 3개로 줄어든다. 어떤 것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더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기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11)은 남해 지역의 활용형을 보인 것으로, ‘옥찌, 옥꼬, 옥떠라’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고, ‘을붕께’는 으-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며, ‘을건따’는 아-게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자음어미 결합형인 ‘옥찌, 옥꼬, 옥떠라’는, 어간이 각각 ‘-지, -고, -더라’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으로, 기저형은 //읍-//이고, 으-게 어미 결합형인 ‘을붕께’는 기저형을 //읍-//으로 볼 수 있다.²⁵⁾ 또한 아-게 어미 결합형 ‘을건따’를 통해 기저형 //읍-//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 자음어미 및 아-게 어미에 결합되는 기저형 //읍-//과 으-게 어미에 결합되는 기저형 //읍-//과 관련하여, 먼저 자음어미, 아-게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 //읍-//은 앞서 창녕 지역에서처럼 ‘을다’의 활용형 ‘을펼따’의 앞부분 ‘을’과, 이 어간과 의미상 유사한 어간인 ‘읷다’의 활용형 ‘읷건따’의 뒷부분 ‘건따’가 혼효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을건따’를 ‘읍-+읷다’로 재분석하여 형성된 어간이 유추를 통하여 자음어미 앞에서 실현된 것이다. 또 ‘을건따’는 으-게 어미 결합형 ‘을궁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으-게 어미 결합형 ‘을궁께’는 K가 P로 교체되는 PK-교체를 일으켜 ‘을붕께’로 확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명하지 않고, ‘읍->읍-’을 상정하고서, 다시 P가 K로 바뀌는 ‘PK-교체’ 의한 ‘읍->읍-’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읍->읍-’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않기 때문에 위의 설명으로 //읍-//으로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25) 국립국어원(2010)에 의하면 충남 서천에 ‘을부니까, 을버따’가 보이고, 경북 청도에도 ‘얼버니까, 얼버따’가 보인다. 『자료집』에 의하면 경북 의성 지역에도 ‘을버라’ 형태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을 보기로 한다.

(12) 울산

을치, 을코, 을터라, 을그~이까, 을겂따(읻다)

(12)는 울산 지역 ‘읻다’의 활용형을 나타낸 것으로, 자음어미 ‘-지, -고, -더라’와 결합하고, 으-계 어미는 비모음을 제외하고는 ‘으이까’와 결합하며, 아-계 어미는 ‘읻다’와 결합한 경우이다. 자음어미 결합형을 볼 때, ‘ㄹ’ 발음을 지닌 기저형 //읻-//을 설정할 수 있고, 으-계 어미 결합형과 아-계 어미 결합형을 볼 때, //읻-//을 설정할 수 있다. //읻-//은 경남 고성 지역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을꼬~을코, 을찌~을치’의 발음상 혼란이 이 활용형을 ‘ㄹ’ 발음 어간으로 재분석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읻-//과 관련하여서는 남해 지역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읻다’의 활용형 ‘을프~이까, 을편따’의 앞부분 ‘을’과, ‘읻다’와 의미상 유사한 ‘읻다’의 활용형 ‘일그~이까, 일겂따’의 뒷부분 ‘그~이까, 겂따’가 혼효되어 ‘을그~이까, 을겂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울산 지역 내에서의 변화가 아닌 차용이더라도 그 변화 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지금까지 어간 ‘읻-’의 전국적인 방언형을 살펴보고, 특히 경남 방언에 나타나는, 이 어간의 다양한 활용형과 이형태를 통하여 기저형을 설정하고, 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경남북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기저형 //을푸-// 형태는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한 것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단일 기저형과 복수 기저형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고성에서 나타나는 단일 기저형 //옴-//의 경우, 의미상 유사한 ‘읽다’의 활용형 ‘이런 다, 일러’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간말 ‘ㅎ’은 ㄹ 뒤에서 발음되는 경음과 유기음이 ‘을꼬~을코, 일꼬~일코’ 등과 같이 혼용된 영향으로 보였다. 창녕의 단일 기저형 //옴-//은 이전 단계의 활용형 ‘을풍게네, 을편따’ 등의 앞부분 ‘을’이, 의미상 유사한 ‘읽다’의 활용형 ‘일궁게네, 일건따’ 등의 뒷부분 ‘궁게네, 건따’와 혼효된 ‘을궁게네, 을건따’에서 다시 K가 P로 바뀌는 ‘PK-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였다. ‘을건따’ 등의 형태가 남해, 울산 등에서도 확인이 되며 그 설명은 동일하다.

복수 기저형 중 창원의 //으르-//와 //을르-//는 ‘옴-’로 변화한 어간이 으-계 어미와 결합하여 ‘으릉께’를 형성할 때, 이것을 ‘으르-+-으께’로 재분석하여 ‘으르-’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복수 기저형인 르-말음 어간으로 인식되면서 르-말음 어간의 패러다임과 동일하게, 아-계 어미 결합형이 ‘을런따’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서도 의미상 유사한 ‘읽다’의 경남 지역 방언형 //이르(리)-/일르-//도 유사한 패러다임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해와 울산에서 발견되는 복수 기저형도 세부적인 활용형은 다르지만 위와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옴-’의 경우 많은 서로 다른 기저형이 경남지역에 몰려 있다. 이것은 이 변화가 음변화에 의한 것들이 아님을 암시한다. 음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진원지일 경우, 주변 지역에 동일한 형태가 몰려 있거나, 진원지에서 먼 곳일 경우, 이전 단계의 기저형이 있을 뿐,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유일한

‘르표’ 어간의 변화는 음운론적인 변화에 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유추, 재분석, 감염, 혼효, 패러다임 간 유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2010.
- 김경아, 「패러다임 간의 유추에 따른 어간 재구조화」, 『어문연구』 36-4,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08, pp.103-129.
- 김덕호, 「영남 지역의 하위 방언구획에 대한 종합적 연구」, 『영남학』 6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pp.213-254.
- 김봉국, 「경남 남해 지역의 언어 -모음 음소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배달말』 46, 배달말학회, 2010, pp.1-26.
- 김세환,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정대,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고성)』, 국립국어원, 2004.
- _____,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창원)』, 국립국어원, 2005.
- _____,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창녕)』, 국립국어원, 2006.
- _____,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산청)』, 국립국어원, 2007.
- _____,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남해)』, 국립국어원, 2008.
- _____, 『경남지역어 조사보고서(경남 울산)』, 국립국어원, 2009.
- 김 현,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국어학』 37, 국어학회, 2001, pp.85-113.
- _____,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2006, 태학사.
- 소신애, 「국어의 ‘p/k 교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2011, pp.101-134.
- 이진호,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2008.
- _____, 「국어 PK-교체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63, 국어학회, 2012, pp.247-273.
- 임석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2004, pp.1-23.
- 정승철, 「어두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 『한국문화』 32, 한국문화연구소, 2003, pp.31-48.
- 최명옥,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성곡학술문화재단, 1993, pp.1599-1642.
- _____,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1998 ㄱ.
- _____,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1998 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1995.

Abstract

The Conjugation and Underlying Form of the Stem "ilp^h-" of the Gyeongnam Dialect

- Focused on the Factor of Change -

Kim, Se-hwan

The stem "ilp^h-" (to recite) mainly appears in //ilp^h-//, //ilp^hu-// nationally except Gyeongbuk and Gyeongnam, and ilp^hu-// (//을푸-//) is changed due to reanalysis. The single underlying form //ilh-// in Goseong was affected by the conjugation 'irinda, illə' of 'ilk' (to read) and by another conjugation 'ilk'o~ilk^ho' of 'ilk' (to read) that cause the confusion of pronunciation with 'ilk'o~ilk^ho' of the "ilp^h-" (to recite). In terms of the //ilp-// (//을-//) in Changnyeong, its conjugation form 'ilbett'a' was changed from the 'ilgətt'a' by PK-alternation, which was formed by the blending the front part 'il' of the 'ilp^hətt'a' and the back part 'gətt'a' of the 'ilgətt'a'.

In Changwon, //ili-// (으르-) which is the one of the multiple underlying forms was changed by the reanalysis the conjugation 'irin^hk'e' (으릉께) to the stem 'ili-' and the ending '-in^hk'e'. And //illi-// (을르-) which is the one of the multiple underlying forms was changed by the inter-paradigm analogy with the stem that ends 'li', that is irregular verb. At this process of the change, the paradigm of the 'ilk-' (을-) whose underlying form is the //ili(li)-/illi-// (//이르(리)-/일르//) assisted the change of the //illi-// (을르-)

In Namhae, Ulsan, as mentioned earlier, //ilk-// (을-) which is the one of the multiple underlying form was caused by the blending the front part 'il' of the 'ilp^hətt'a' and the back part 'gətt'a' of the 'ilgətt'a'. The factor of the change of the //ilp^h-// (을-) is the analogy, reanalysis, blending, inter-paradigm analogy, PK-alternation.

Key Words : 'ilp^h-', 'ilk-', reanalysis, analogy, blending, PK-alternation

김세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 shkim93@yu.ac.kr

이 논문은 2022년 01월 27일 투고되어
2022년 03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3월 28일 게재 확정됨.